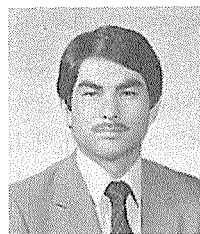


欧洲 協商을 지켜본 所感



Mr. Eddie L. Glassford

本会 國際部

한국 흑백 TV의 안티덤핑 件에 관한 회의와 對英國 흑백 TV 수출 쿼터량 조정에 관한 영국의 전자업계 대표들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보좌하기 위하여 나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회장(金玩熙博士)에게 제시할 성명서를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확인하는데 거의 8 일동안 열심히 노력하였다.

6월 11일 나는 작성된 서류를 들고 金 회장과 함께 출발할 시간을 다소 긴장된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金 회장은 제13차 韓·日經濟委員會 양국간의 電子技術 移轉 현황에 대하여 초대 연사로 강연을 요청 받았다.

이로 인하여 金 회장은 계획되었던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고, 혼자서 먼저 출발한 나는 東京 나라 따 공항에서 7시간 이상이나 金 회장을 기다려야 했다. 이 일은 나의 이번 출장에서 여러가지 유쾌했던 일과 언짢았던 일 중에서 처음으로 겪은 일이었다.

EEC 안티덤핑 件에 대해서 우리의 고용 변호사에게 들은 진전 사항과 조언에 의거 판단해보니 앞으로 있을 EEC 대표들과의 회의 결과에 대하여 낙관적이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이 걱정스러운 마음은 브르셀 주재 한국 대표부 직원을 만났을 때 더욱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있을 EEC와의 회의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브르셀에 있는 우리의 고용 변호사들과 장시간의 회의를 가졌다.

다음날 EEC 대표와의 회의는 EEC 본부에서 오전 10시에 상호 인사로 시작되었다.

회의는 먼저 金회장이 한국전자공업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뒤이어 EEC 대표의 안티덤핑 件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전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첫 회의 과정 중에서 나는 金 회장의 조리가 있고 능숙한 설명이 EEC 대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상호 신뢰와 이해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자신도 金회장의 설득력과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그의 외교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EEC가 한국전자공업에 대하여 아는 바가 아주 적다는데 나는 놀랐다.

그들은 마치 한국이 EEC 시장의 진출만을 위하여 무조건 싸게 생산 및 수출을 한다는 인상을 고정관념으로 지니고 있었다. 金 회장은 한국이 쌍방 교역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조리 있게 설명하여 그들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 버렸다. 회의가 끝날 무렵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통계 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폐회했다.

나는 이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으며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점심을 마치고 회의장을 떠났다.

우리는 다시 對英 수출량 협상을 위해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대사관의 차로 공항을 향해 달렸다.

그 날 아침 비행기 좌석을 再確認까지 하였으나 막상 공항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비행기는 이미 좌석이 이미 다 찼다고 하는 것이었다. 金 회장과 나는 갑작스런 일에 몹시 당황하였다. 또한 우리

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 대사관 직원들도 어쩔줄을 몰라 하면서 공항측에 항의를 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그때 런던 Heathrow 공항의 항공 통제탑 직원의 파업으로 비행 스케줄이 많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할 수 없이 우리는 英國의 조그마한 都市인 Luton 으로 가는 다음 비행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여러시간 연착 후에 Luton에 도착하였지만 제일 곤란했던 일은 짐을 찾는 것이었다.

Luton 공항은 그렇게 많은 승객을 취급할 만한 시설이 없는데다가 수백명의 국제 탑승객과 수화물을 취급하고 있어서 아우성이었다. 우리는 입국수속을 뚫기 위하여 더위와 습기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 시간 동안이나 짜증나는 것을 참으면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짐을 찾은 후 다행히도 택시를 잡을 수 있어 런던까지 80km를 달려 갔다.

미리 예약된 런던 호텔에 도착하니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우리 일행의 이름은 예약 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호텔은 여행 씨즌이기 때문에 예약이 다차서 빈 방이 없었다.

전후 내용을 알고 보니 우리 여행사의 실수로 6월 17일을 7월 17일로 예약해 놓았던 것이다. 밤 시간은 늦어만 갔다. 다행히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 호텔 지배인의 친절로 겨우 하루 밤 뿐이지만 방을 하나 연계되어 방 걱정을 덜었으나 서로 어긋난 사정 때문에 Heathrow 공항에서 기다릴 대사관 직원들과 런던 무역관 직원들에게 연락할 길이 막막했다.

우여곡절 끝에 밤 열시가 넘어서야 그들과 겨우 전화 통화가 되었다. 서로 반가운 만남을 나눌 겨를도 없이 그 다음날 있을 英國 전자공업협회(RIC)와 전자장비제조자협회(BREMA)와의 회의에 대하여 함께 사전토의를 밤 늦게까지 하였다.

그 이튿날 오전 10시에 BREMA 사무실에서 5명의 영국 대표(1명의 영국정부 대표 포함)와 우리 측(업서버로서 참석한 정부 대표 1명과, 런던 무역관 관장 포함)이 함께 자리를 해서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 회의 전에 나는 한국 대사관 직원으로 부터

바로 전에 있었던 영국과의 신발류 협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들은바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金회장과 영국 대표들은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서로 솔직하게 양측이 각각 제시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꼈다.

이 회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본 것은 영국 대표들이 金회장의 진지함과 기술적인 지식에 대해 매우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결과 적으로 英國 측은 1981 후반기 1981년도 흑백 TV쿼타로서 1만대를 추가로 증량하여 받아들여 주었다. 이는 이회의에서 보여준 상호 협력 정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2명의 정부 업서버들도 이 회의에서 풍진 상호 협조 의식의 분위기와 예상하지 못했던 보너스에 놀라와 하며 기뻐 했다.

이러한 일련의 회의가 성공적으로 성취되고 보니 그 동안에 내가 기울였던 노력과 소비한 시간에 보상을 받은 것 같아 가슴 속 깊이 만족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서울을 떠나오면서 내가 부딪혔던 일들의 초조감이 시종 두 회의에 긴장감을 가지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호사다마라는 한국 속담처럼 내 마음도 여간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공적인 이번 출장의 성과는 앞으로 새로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내 자신 큰 자신감을 갖고 일에 뛰어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내가 이번의 회의에서 배운 것은 우리의 전자업계가 성공적인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자업계가 해당 외국의 전자 업계와 상호 이해와 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의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제품의 수출만을 허가해 달라는 식의 일방적인 주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相互扶助의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장차 수출의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